

월간 범어교회보 Vol. 442

늘 푸른 숲

2026. 4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험한 십자가 아래에서
온세대 기도회,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청년부, 내가 누구이기에
산책(冊), 우리 같이 걸을까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 전서 15장 17절

예수 그리스도



묻어나는 사랑



이지훈 담임목사

SNS와 같은 소셜 플랫폼에는 사람들이 올린 다양하고도 유익한 정보들이 참 많습니다. 정보가 가장 중요한 시대에 불특정 대상을 향해 자신이 알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신이 아는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좋은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숨길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때,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사랑이 묻어나옵니다. 사랑 가운데 누리는 그 충만함을 알리고 싶은 자연스러운 본능의 발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은 인간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 타락하여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어진 인간의 완악함을 적나라하게 고발하시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무가치하고 죽어 마땅한 인간을 위해 스스로를 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무조건적이고 또 얼마나 위대하고 기이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인생이지만 그 기이한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에는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한 사랑이 묻어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수행을 통해 거룩한 인생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받았고 또 받고 있는 사랑의 충만함 안에서 그 사랑을 묻어내고 흘려보내는 인생입니다.

따뜻한 봄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기 가장 좋은 계절에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이 묻어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을 열며

따스한 햇살이 창가로 쏟아집니다. 찬란한 봄이 왔는데
여전히 텅 빈 듯한 내 마음은 평생 사용하던 이가 빠져나간 듯 시리고 허전하진 않은지요.

사춘기 시절 그렇게 부모 마음을 속 썩이던 아들이 입대하고 떠난 자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도 홀로인 것 같은 외로움,
간절히 바라던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엄습해 오는 허무감,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주저앉은 무기력함,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공허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 없이 내가 세운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허무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 속엔 모든 순간이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ですよ.

인생이 참 고단하다고 말하는 제게 늘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는 한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칠십 넘게 살아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더라.”
짧은 그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큰 울림이 되던지요.

애통해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신 적이, 하나님께 원망하신 적이,
기도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인내의 시간이,
고스란히 아픔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의 시간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이유는 그분 앞에서 울고, 그분 앞에서 넘어지고
다시 위로받고 힘을 얻어 지금까지 살아오셨기 때문임을 압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과 깊게 잇달아 있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나’를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 김현성 집사(교회보팀)

2026 April | Vol. 442

CONTENTS

- 02 포토에세이
- 03 목양칼럼
- 04 4월을 열며 _ 김현성 집사
- 05 목차
- 06 BOOK |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_ 장철웅 목사
- 08 절기 | 그 험한 십자가 아래에서 _ 교회보팀
- 10 온세대 기도회 |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_ 김태완 목사
- 11 온세대 기도회 | 온 세대가 어우러진 기도회 _ 김명신 집사, 최금정(아들)
- 12 신임교역자 소개 | 순결한 예배가 순결한 삶으로 드러지길! _ 김승현 목사
- 13 신임교역자 소개 |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배우며 _ 박민열 강도사
- 14 내 영혼의 찬양 | 유연처럼 남긴 소망의 노래, “선한 능력으로” _ 교회보팀
- 16 나의 한 구절 | 이영조 집사
- 18 청년부 | 내가 누구이기에 _ 심예은 청년
- 20 유치부 겨울성경학교 | 에벤에셀과 여호와 이레, 다윗의 고백 _ 엄용석 집사
- 21 유년부 겨울성경학교 |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요 _ 김수정C 집사
- 22 공감의 장 | 서로를 품는 일터, 따뜻한 동행 _ 정대식 집사
- 24 인터뷰 |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남아공으로 _ 송요한 선교사
- 27 책 소개 | 산책(冊), 우리 같이 걸을까요?
- 28 행사단신 | 2월과 3월의 범어
- 30 범어 ‘인(人)’의 얼굴 / 범어범어
- 31 범어동정 / 행사 안내

제442호 | 발행일 2026년 4월 5일

발행인 이지훈 | 편집인 권오종 | 2026년 교회 표어 “에벤에셀과 여호와 이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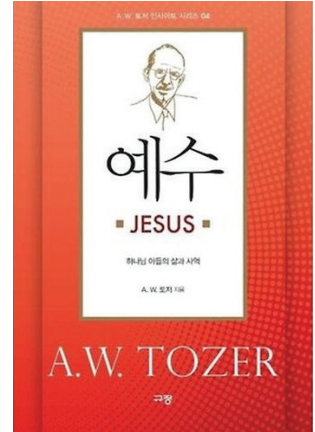
주소 42083 대구 수성구 청호로84길 71 | <http://pomo.net>

Tel. (053) 667 8800 | Fax. (053) 667 8888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올해, 늘 푸른 숲의 기획도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라고 외친 A.W.토저가 그의 영적 통찰력으로 써 내려간 책 <예수>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미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내밀하신 음성을 듣는 은혜를 누리시길 고대합니다. 이번 호는 ‘부활하신 주 예수’ 편의 예수님을 읽어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 28:18)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부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기에 주님은 이전에 하지 않으셨던 선포를 하신 것일까요.



‘참된 영적 능력은 옛 십자가 안에 있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리 안에 있다’ (130p)

먼저, 만약에 교회에 부활 신앙이 없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힌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시간의 간격 속에 담겨있습니다. 부활의 아침, 여인들은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지만, 슬픔과 두려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애도하기 위해 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연민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전 그들의 신앙의 방향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습을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헌신을 기념하고, 그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는 ‘연민에 빠진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인식 속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두려움 가운데 머물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니라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위대한 스승’으로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임이 아니라 그저 ‘추모하는 모임’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죄 사함의 확산도 죽음 이후의 소망도 없는, 능력 없는 윤리적 공동체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 역사적인 부활의 아침, 이제는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된 여인들에게서 신앙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연민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과 승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즉시 무덤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들의 방향은 ‘무덤으로’(to)가 아니라 ‘무덤으로부터’(from)입니다. 무덤을 향하던 인생이, 무덤을 떠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방향 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무덤 밖,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주님은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이 세상에서와 저 세상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하시며 ‘산 소망’이 되심을 선포하신 후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20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덤을 향한 삶도 아니요, 이 땅만을 위한 삶도 아니라 영원을 위한 삶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장차 있을 부활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범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장철웅 목사

그 험한 십자가 아래에서

사순절의 묵상 기간을 지나, 그분이 밟고 가신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 내며 마침내 이 ‘해골 언덕’에 이릅니다. 빛을 가진 모든 것이 빛을 잃었기에, 어둠 속에서 번득이는 사람들의 광기는 낭자한 핏빛보다 더 붉어졌으며 퍼붓는 저주와 조롱의 소리는 피내음을 덮고도 하늘을 찌릅니다. 이곳이 견디기 힘든 이유는 이 몰아치는 어둠과 악한 광기와 저주와 피내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도망친 것은 일신의 염려보다는 감내하지 못할 그들의 죄의 본성을 차마 대면할 수 없어서는 아닐는지요. 거칠고 비참하여 험한 이 십자가 아래, 감히 서 있지도 못할 나의 죄의 중량과 그에 비해 너무나 미약한 나의 헛됨이 상충하여 두 발이 점점 이 돌밭 아래로 끌려 들어갑니다.

한 역사학자에 의하면 십자가 처형은 고통의 모든 차원을 경험한 후에야 죽음으로 놓아준다는, 인류가 고난한 가장 참혹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극악무도한 죄인만을 매다는 십자가에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린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우리의 허물로 만든 나무에 매달리시고 조롱과 멸시의 못에 박히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날이 서슬진 창에 찔리셨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가 폴 워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한 학생이 갑자기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겨우 한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몇 시간 고통받은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했다는 것을 믿으란 말입니까?” 목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학생은 악의로 질문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의로 답하게 하십니다. 그 겨우 한 사람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합한 것보다 더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과 이 우주의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가치를 합

한 것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학생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그 겨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피 흘릴 어린양을 수풀에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들을 대신할 희생제물은 어디에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 그 수풀에 걸린 어린양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버려지심으로 흘리신 대속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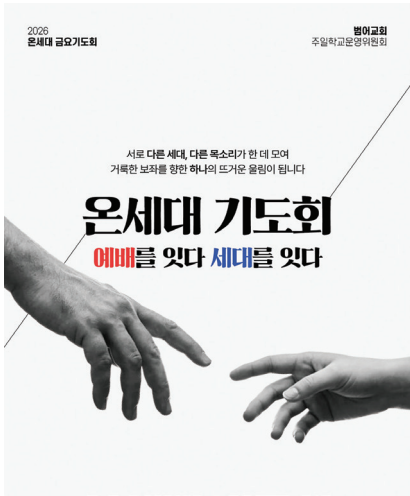
피가 죄로 가로막혀 있던 휘장을 끝내 찢어내고 화목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분은 다투지도 들레지도 않는 속죄양으로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는 그를 찌르고 죽인,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흠 없는 제물이신 예수님의 피흘리심을 통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죄에서 나음을 입은 이는 결코 스스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인 우리입니다.

이제, 이 돌밭 아래로 끌어내려진 두 무릎을 엮드려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며 그 피로 사하여 주심으로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올려 다뵙니다.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없이는 이 땅 아래로 매몰될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렇게 더 낮고 낮은 땅, 가장 험한 발인 나의 마음의 발까지 내려오심은 감히 감당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그분의 사랑하심의 극치임을 무릎으로 엮드린 후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위로부터 값없이 내려 주신 수직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이웃을 향하여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수평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십자가의 교차로를 매 순간 건넵니다. 이 횡단이 때론 거칠어 넘어짐의 연속일지라도 결코 주저앉지 않을 이유는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께서, 넘어진 그곳마다 나의 거칠고 모난 돌들을 쌓아서 '은혜의 기념비'로 바꾸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 교회보팀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온 세대가 하나가 되다



금요기도회가 남녀노소 모두와 함께
한 마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면 좋겠다

‘온세대 금요기도회’는 이런 마음에서 처음 출발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선 반복되는 풍경이 있습니다. 본당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부모님과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게 떨어지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로 왔다가 ‘짧은 이별’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교회에 올 때까지는 하나였다가, 본당 입구에서 둘로 나뉘는 풍경을 보며 왠지 모를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아이들에게 비춰질 금요기도회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의 인식 속에서 기도회는 ‘어른들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

여질 것 같았습니다. 예배의 주체가 되어야 할 아이들이 예배의 방해자로 자기를 인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온세대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전 세대가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사실 불편한 일입니다. 선곡된 찬양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낯선 곡들일 수 있고 어른들에게 어린이 율동은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관심사가 다른, 서로 다른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건 진심이 담기지 않을 때도 있고, 때때로 눈높이가 낮아진 설교는 유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이처럼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할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는 어머니의 무릎 밑에 누워 자며 새벽기도를 드리다 아버지 품에 안겨 돌아오던 어린아이들,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른 채 할머니를 따라 ‘주여’만 외치던 어린아이들, 글자도 모르지만 할아버지 곁에 앉아 성경책 넘기는 소리를 좋아했던 어린아이들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온세대 기도회’를 통해 미래의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갈 믿음의 아이들이 자라나기를 기대합니다.

• 김태완 목사(주교위 디렉터)

온 세대가 어우러진 기도회

저희 가정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에서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연령으로, 각자의 바쁜 삶 속에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의 업무로 기도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남편조차 일정을 조정하여,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온세대 기도회’를 통해 각 세대 앞에 놓여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세대가 어우러져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신 감동, 또한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의 감동이 다시 떠올릅니다.

주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찬양을 통해 전한 고백처럼, 어린 자녀부터 어르신들까지 온 세대를 따스함으로 보듬는 범어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범어교회 가족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들 긍정이의 소감을 통해 세대를 잇는 기도들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 김명신 집사(어머니, 디모데청년회)



저는 ‘온세대 기도회’때, 유초등부 대표를 추천받아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밤마다 연습했습니다. 기도회 당일에는 긴장했는지 배도 아팠습니다. 교회에 일찍 도착해서 ‘온세대 기도회’ 특송 연습을 하는데 걱정과 달리, 배도 안 아프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저는 찬양 연습을 하면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떨지 않고, 대표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저의 유초등부 대표 기도 뒤로도 온 세대의 기도들이 이어졌습니다. 대표자 기도들이 끝났을 때, ‘온세대 기도회’가 무엇인지 그제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같이, 이 예배가 말 그대로 온 세대를 이어주는 기도회구나. 큰 가족 같다.’ 라구요.

그리고 하나님께 저도 다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대표 기도를 무사히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모두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긍정(아들, 초등부)

순결한 예배가 순결한 삶으로 드러지길!



김승현 목사

반갑습니다. 범어교회 1교구를 섬기게 된 김승현 목사입니다. 저는 울산에서 태어나 학교를 졸업하고 줄곧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회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지만, 그 부르심을 외면하며 도망 다녔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더 좋았고 세상에 섞여 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런 세상에서 상처받고 도망 다니던 저의 진짜 모습, 나 자신을 미워하고 있던 자아를, 바쁜 세상살이 속에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가진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 ‘내가 너를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작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거룩하게 여기시며 부르시는데, 나 스스로가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도망 다니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는 눈물을 쏟으며 회개했고,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대단한 소명이나 큰 포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제게 맡겨주신 한 교회, 한 영혼을 위해,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순결한 복음이 순결한 예배를 만들고, 순결한 예배가 성도의 순결한 삶으로 이어져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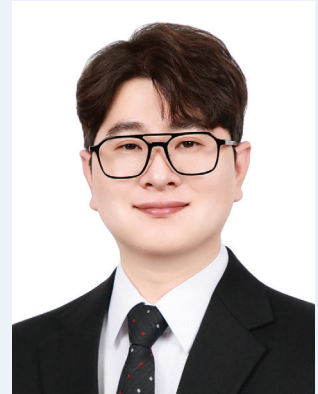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범어교회에 보내신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편에서 성도들에게 온전한 말씀을 전하고, 또한 성도의 편에서 함께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회자, 하나님과 성도들께 칭찬받는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배우며

반갑습니다. <늘 푸른 숲>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범어교회로 부임해서 5교구와 세계선교위원회를 섬기게 된 박민열 강도사입니다.

저는 약 100여 명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15명이 넘는 가족과 한 공간을 나누며 지낸 어린 시절은 제게 특별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며 부딪히고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배려와 책임을 배웠고, 무엇보다 사랑을 나누는 삶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받은 사랑은 제 인생의 방향이 되었고, 이제는 그 사랑을 교회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박민열 강도사

청년 시절에는 직장 생활을 하며 성실과 책임의 가치를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포기하기보다 배우고 도전하며 자신을 단련했고, 맡겨진 일은 끝까지 감당하려 애써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았던 시간도 있었지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 삶을 붙들고 계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교회를 섬기며 찬양 인도와 여러 사역에 참여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신학의 길로 나아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역은 능력이 아니라 은혜이며, 직분은 자리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 말씀 안에서 세워지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길 기대합니다. 부족하지만 성실과 충성으로 섬기겠습니다. 기도로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언처럼 남긴 소망의 노래, “선한 능력으로”

사순절은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지만, 그 여정의 끝에는 언제나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디트리히 본회퍼가 남긴 시 <선한 능력으로>에도 그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아침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의 고백이, 녹록지 않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매일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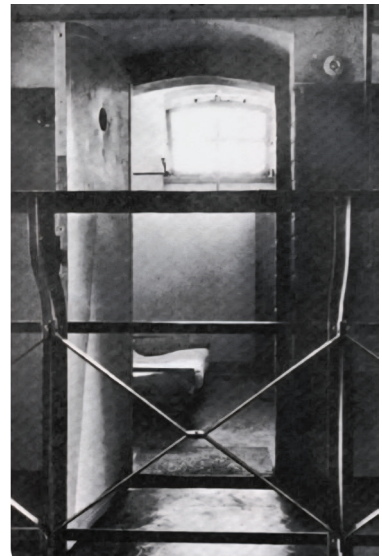
선한 능력으로(Von guten Mächten)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1906-1945)

디트리히 본회퍼는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이자 목사로, 나치 정권에 맞서 신앙적, 윤리적 저항을 실천한 인물이다. 독일 브레슬라우(현재 폴란드 브로츠와프)의 지식인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신학에 관심을 보였고,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뒤 젊은 나이에 교수로 활동했다. 히틀러가 집권하자 그는 국가 권력에 굴복한 독일 교회를 비판하고 고백교회 운동에 참여하며 교회의 독립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 했다. 이후 나치 정권에 저항하는 활동에 연루되어 1943년 체포되었고, 베를린 테겔 감옥에 수감되었다. 감옥에서 그는 많은 편지와 신앙 글을 남겼는데, 그중 1944년 성탄절을 앞두고 가족에게 보낸 시가 바로 <선한 능력으로>이다. 당시 그는 석방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처형을 앞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시를 마치 ‘유언’처럼 남겼다.

이 시는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다. 다가오는 죽음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신앙의 성숙,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게 일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불확실한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담겨 있다.

본회퍼가 말한 ‘선한 능력’은 막연한 긍정이나 감상적인 낙관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 그리고 동행을 가리킨다. 고난은 인간의 힘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



심에 자신을 맡길 때 비로소 견딜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다. 이는 그가 평생 비판했던 ‘값싼 은혜’와도 이어진다. 본회퍼에게 참된 제자도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였다. 그래서 ‘선한 능력’이라는 표현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동적인 신앙을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낸 말이며, 그의 삶과 신학을 함께 보여 주는 마지막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시가 성탄을 앞두고 쓰였다는 사실은 깊은 의미를 지닌다. 감옥의 차가운 벽과 처형의 그림자 속에서도 본회퍼는 성탄을 어둠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라보았다. 인간의 절망 한가운데 찾아와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성탄의 의미를 그는 마음 깊이 붙들고 있었다. 그래서 이 시에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선한 능력 안에 있다’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믿음이 흐른다. 그것은 절망을 외면하는 낙관이 아니라,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신앙에서 피어나는 희망이다. 결국 이 시는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빛, 곧 희망의 노래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인간과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 지키고 계십니다. <선한 능력으로>는 한 사람의 마지막 고백을 넘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남겨진 소망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활의 아침으로 이끌고 계신다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시편 125편 1~2절)

• 교회보팀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17절)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해야 하고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서는(become) 데 용기가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be) 데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 빌 하이벨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노력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는 '빛진 자'의 자세로 살아갑시다.

•이영조 집사(하사모)

청년부

내가 누구이기에



청년2부 봄 수련회가 ‘Who Am I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주제로, 1박 2일 동안 경주 베이스캠프 수양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교회 식당에 모여 함께 출발하였습니다. 맑은 날씨와 창밖 풍경을 보며 소풍을 떠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경주로 향했습니다.

첫 일정은 레크레이션으로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지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익숙하지 않은 지체들이 한 조가 되었지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분위기가 금세 형성되었습니다. 어색할 수도 있는 자리에서 먼저 다가가려는 태도를 보며 하나님께서 서로의 마음을 만지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집회에서는 김규섭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본문으로 ‘Who Am I’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말씀을 통해, 정체성은 내가 가진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제 부족함과 한계로 인해 낙심할 때가 많았지만,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부르시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집회 이후에는 조별로 야식을 먹으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잘 알지 못하던 이들과도 말을 나눠 볼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잘 알지 못하던 지체들 사이에 작은 연결점이 생겼습니다.

토요일에는 폐회 예배를 드린 후 경주월드로 이동하여 조별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놀이공원을 함께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함께 웃고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서로를 챙기며 함께하는 태도 속에서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을 더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지나며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자리에서 있는가’ 좋은 지체들이 많은 공동체 안에서, 부족한 저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깨달게 된 것은, 하나님보다 제 기준으로 저 자신을 더 많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존재임에도, 제한된 시야로만 스스로를 바라보며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보다 제가 판단한 제 모습을 더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청년2부가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각자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서로를 세워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심예은 청년(청년2부)



에벤에셀과 여호와 이레, 다윗의 고백

‘에벤에셀과 여호와 이레, 다윗의 고백’의 주제로 열린 유치부 겨울성경학교는, 유치부 교사로서 처음 참여한 제게 ‘순수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말씀을 듣고, 인형극 속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순간 누구보다 크게 환호하며 “다윗을 이기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라고 외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100% 진심으로 고백했던 적이 있었던가?’

모태신앙으로 수도 없이 들어온 말씀이었지만, 정작 제 삶의 골리앗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물러서는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손을 붙드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순간순간에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셨음을 깨달으며, 믿음을 새롭게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아이들만큼이나 순수한 열정으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가르치신 전도사님과 부장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선생님을 보며 ‘유치부 사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범어교회 주일학교를 통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과 전도사님, 교사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 집사님들! 유치부 교사는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습니다. 첫날엔 아이들이 아저씨들에 대한 어색함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 ‘품에 쏙’하고 안기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겁내지 마세요. 카봇, 마인크래프트, 티니핑 이름 몰라도 되고 색칠 스킵 없어도 괜찮습니다. 유치부 사역은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고 따뜻함을 누리는 은혜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 엄용석 집사(목양교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요

우리 유년부 아이들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요’라는 주제로 겨울성경학교를 보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선생님들이 릴레이 기도로 마음을 모으며 차근차근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쁘게 섬기는 선생님들을 보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유년부 공동체의 끈끈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년부는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모인 곳이지만 2월은 늘 특별한 설렘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처음에는 낯선 분위기에 주눅거리며 수줍어하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자 어느새 서로 어울려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 귀한 생명들을 유년부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왔습니다.

찬양과 말씀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말씀 시간에 다 함께 고백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성령님을 믿어요” 이 고백을 맑은 목소리로 따라 하며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 마음에 더 몽클한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수한 고백이 하나님께는 그 어떤 거창한 찬양보다 더 큰 기쁨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레크리에이션과 코너 활동 시간에는 함께 웃고 협력하는 기쁨도 배웠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깔깔 웃는 아이들을 보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리딩지저스’를 통해 아이들이 앞으로도 말씀을 가까이하며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을 섬기려 간 자리였지만, 오히려 아이들의 티 없는 믿음을 통해 제가 더 큰 위로와 은혜를 받고 돌아온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하루였지만 하나님 안에서 웃고 배우며 은혜를 나눌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기도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과 정성으로 섬겨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드린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라는 고백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학교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김수정C 집사(찬양반주자)

서로를 품는 일터, 따뜻한 동행

4월 셋째 주일은 범어교회에서 처음으로 지정한 ‘장애인 주일’입니다. 그 즈음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그 권리와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는 세상을 꿈꾸는 날입니다.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누구나 있는 그대로 존중받으며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번 공감의 장에서는 일터에서 손을 맞잡고 함께 걷는 장애인과 근로지원인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들의 따뜻한 동행이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게 하는 기분 좋은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우리랑 참 달라요.”

직장생활 25년 차가 되니, 최근 들어 더욱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면, 어느새 세월의 무게를 느끼며 묘한 감정이 스칩니다. 그런데 올해 저는 이들과는 또 다른 아주 새로운 세계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누님이 운영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무료 법률 자문을 하게 되면서, 제가 알던 조직문화나 세대 갈등의 기준이 통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업장은 국가가 인정한 장애인 친화 사업장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10명 이상 고용하고 편의시설과 최저임금 이상 급여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세워질 수 있는 곳입니다. 대구에는 약 40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있지만, 전문 인력과 지원 부족으로 문을 닫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장애인 업

무를 오래 다뤄 온 전문가들이 “장애인에게 지속 가능한 일터를 세우겠다”라는 귀한 믿음과 사명을 품고 시작한 기업입니다. 단순히 보이는 제품과 서비스 뒤에는 이웃을 향한 깊은 배려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법률 자문만 해오다 지난해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공장을 둘러보던 중, 장애 사원들 곁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두 분의 어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장애 사원들이 업무에 어려움을 느

낄 때 곁에서 도와주는 ‘근로지원인’이었습니다. 그중 한 분의 얼굴이 낮익어 자세히 보니, 무려 10년 만에 다시 뵙는 대학 선배님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하시다 은퇴 후, 새로운 삶으로 근로지원인

이 된 그분이, 누님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상치 못한 재회는 참 따뜻하고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 선배님께서 한 장의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내가 사장으로 30년 일하면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선물을
한 달 동안 함께 일한 장애 사원에게 받았네
정말 순수하고 착한 친구들이야.”



사진 속에는 귀엽게 포장된 우유와 빼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선물이었지만, 선배님께는 30년의 경영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한 뜻깊은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 고용 현실은 아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많은 발달 장애인이 ‘3개월 인턴 → 계약 종료 → 새 인턴 채용’이라는 순환 속에서, 안정된 정규직을 만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물을 건넨 가영(가명)이는 바로 그날 오랜 기다림 끝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날이었습니다. 장애인에게는 평생 단 한 번도 오기 어렵다는 안정된 일자리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선배님에게도, 가영이에게도 모두 축복 같은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사자와 어린양이 함께 뛰놀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

그 작은 공장에서 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따뜻함은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품는 일터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처럼 조용히, 그러나 깊은 울림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우리 범어교회도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을 품은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 정대식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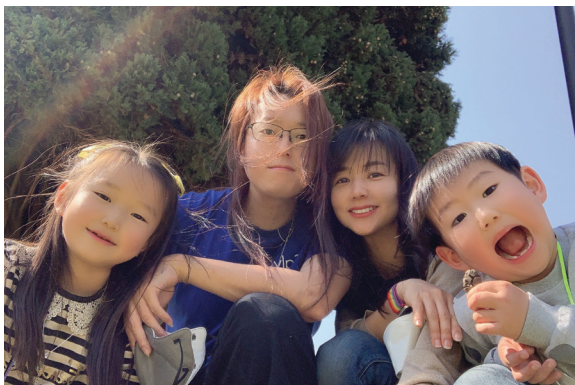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남아공으로

올해 인터뷰 코너는 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떤 계기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담고자 합니다. 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열네 번째 순서로 남아프리카공화국 협력선교사님인 **송요한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Q. 먼저 성도님들께 가족 소개와 함께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첫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들려주세요.

A. 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사역 중인 송요한 선교사입니다. 저의 선교 인생은 제가 선택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저는 어머니 김영 선교사님(인천 제2장로교회 파송)의 손을 잡고 낯선 땅 남아공으로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소천하신 후, 깊은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받고 54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11학년으로 현지 학교에 입학했는데, 언어 장벽과 인종 차별의 시선 속에서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원망도 많았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고, 그 눈물의 기도가 저를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현재는 제 곁에서 가장 든든한 중보자가 되어주는 아내와, 선교지에서 건강하게 자라준 중학교 1학년 딸,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저의 가장 큰 동역자이자 사역의 원동력입니다.



Q. 모태신앙으로 자라셨지만, 일본에서 겪으신 ‘암흑의 시간’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간증을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A. 청년 시절의 저는 사실 ‘하나님 없는 열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남아공에서 신학을 공부하다가도, 어렵게 사역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내가 돈을 벌어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려야겠다”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결심을 하고 무작정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일본어를 전혀 몰랐지만 독하게 공부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을 정도로 편의점 심야 알바와 공부를 병행하며 소위 ‘자수성가’를 꿈꿨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한 청년이었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실명 진단을 내렸습니다. 보름 동안 암흑 속에 갇혀 하나님께 악을 쓰며 대들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게 무슨 죄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지만 열흘이 지나고 보름째 되던 날, 기력이 다해 쓰러진 제 마음에 낮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요한아, 이런 폐인 같은 너도 내가 여전히 사랑한다” 그 음성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저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눈이 떠지지 않아도 좋으니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만 써주세요”라고 항복 기도를 드린 다음 날, 기적처럼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Q. 29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기타를 시작해서 ‘기타리스트 선교사’로 부름을 받으셨는데, 그 과정이 참 놀랍습니다.

A. 일본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다시 남아공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저 부서진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배운 일본어도, 세상적인 지식도 선교지 빈민가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음악’이라는 새로운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29살, 악보도 볼 줄 모르던 제가 기타를 잡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늦었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제게 특별한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연습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곡을 쓰기 시작했고, 3년 만에 프로 연주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실력이 되었습니다. 이건 제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급하게 저를 쓰시기 위해 부어주신 은총이었습니다. 기타 선율은 언어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제가 기타를 치기 시작하면 굶주림에 지쳐 공격적이던 아이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순한 양처럼 변했습니다. 음악으로 열린 그들의 마음 밭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특별한 소명이었습니다.



Q. 우리 범어교회와 연결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A.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정교한 퍼즐 같습니다. 이건영 목사님의 소개로 대구 범어교회를 알게 되었는데 한걸음에 달려와 이지훈 목사님을 뵈었을 때의 그 감동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을 격려하시기 위해 가장 든든한 믿음의 고향을 연결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범어교회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사랑을 받을 때마다, 저는 혼자자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범어교회는 저에게 단순한 후원 교회를 넘어, 영적인 안식처이자 든든한 병참기지입니다.

Q. 남아공 현지에서 펼치고 계신 사역의 풍경을 성도님들께 생생하게 소개해 주세요.

A. 남아공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빈부격차가 극심하고 범죄율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저는 주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빈민가나 고아원, 양로원을 찾아갑니다. 한 번 사역을 나갈 때마다 햄버거나 빵 200인분 정도를 준비합니다. 아이들은 굶주림에 지쳐 있고, 어른들은 희망 없이 잔디밭에 누워 지냅니다. 그곳에서 제가 기타를 들고 앰프를 연결해 연주를 시작하면 수백 명의 아이들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연주 중간중간 저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쓰레기 더미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단다”라고요. 지금까지 1,000번이 넘는 공연 사역을 통해 수많은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찬양 가사를 통해 정직과 사랑을 가르칩니다. 때로는 머리에 총구가 다섯 번이나 닿는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복음의 선율 앞에 무릎 꿇는 영혼들을 볼 때 사역을 멈출 수 없습니다.



Q. 선교사로서 평생 품고 있는 기도제목, 그리고 최근에 응답받은 은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최근 가장 큰 응답은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며 사역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범교회를 비롯한 새로운 동역의 손길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싶을 때 하나님은 항상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은 남아공 현지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미션센터(Mission Center)’를 세우는 것입니다. 현재는 월세로 사는 집에서 아이들 수업을 하고 있지만,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우리만의 거점이 절실합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고, 제 아내는 캘리그래피나 서예를 통해 문화를 가르치며, 매주 뜨겁게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를 꿈꿉니다.

남아공의 미래를 바꿀 영적 리더들을 길러내는 요람을 만드는 것이 저의 남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범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는 아프리카 땅에 울려 퍼지는 제 기타 선율의 가장 강력한 울림판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리 교회보팀



기도 제목

- 1) 치안이 불안한 그곳에서 저희 가족과 사역지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 2) 미션센터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길들이 열리고 재정적 후원자들이 연결되도록.
- 3) 80세가 넘으신 저희 어머니 김영 선교사님이 수술 후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여, 남아공 사역의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실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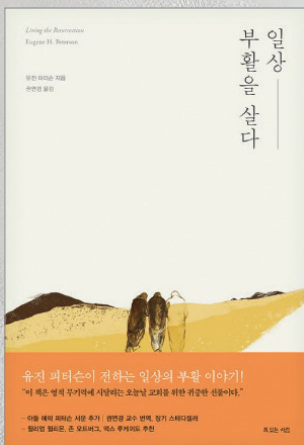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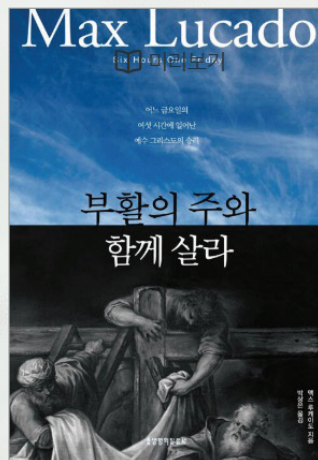
우리 같이 걸을까요?

산책(冊)

부활의 주와 함께 살라 (맥스 루케이도, 생명의말씀사, 2020)

본질이 아닌 것들이 수시로 우리 삶을 뒤흔들 때가 있다. 그 흔들림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메시지에 있지 않다. 내가 알고 있던 메시지를 깊이 이해하는 데 있고, 떠올리면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 분과의 추억 속에 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에게 구원 얻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것의 비극을 잊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기 때문일 수 있다.” 본문 中



일상, 부활을 살다 (유진 피터슨, 복 있는 사람, 2015)

부활은 매년 한 번씩 이벤트처럼 기억할 사건이 아니다. 현재의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미래에나 마주할 영적인 사건만도 아니다. 부활은 우리가 매일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이며, 삶 자체가 되어야 한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일이며, 그 일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영성이란 우리가 마음으로 어루만지며 위로받을 수 있는 하나의 심리적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표현해야 할 구체적 삶의 방식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적인 만큼,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의 노력 역시 일상의 땀을 통할 수밖에 없다. 뒤집어 말하면, 이런 실천적 영성이 갖추어지지 못할 때 교회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 밖에 버려지는 소금과 같은 운명이 되고 말 것이다. 이 책에서 유진 피터슨은 이런 실천적 영성의 열쇠가 다름 아닌 부활이라고 말한다. 기독교적 영성이란 애초부터 “부활에 뿌리박은 영성”인 것이다.” 본문 中



2월과 3월의 범위

이 외에도 많은 행사가 지난 달에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http://pomo.net>



2월 28일(토) 2026년 범위영성대학(UPS) 입학 컨퍼런스가
지하1층 갈릴리채플에서 오후 3시에 있었습니다.



2월 28일(토)에 사회봉사위원회 다문화팀에서 여성 워크샵으
로 “행복한 자녀를 위한 엄마 교육”이 있었습니다.



2월 28일(토) 유년부 겨울성경학교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
요”라는 주제로 지하1층 영아부실에서 있었습니다.



3월 1일(주일) 오후예배 시간에 대전 제이교회 김경식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범위영성대학(UPS) 입학 예배를 드렸습니다.



2월 28일(토) 오전 10시 30분에 성경적 태아교육과 산모교
육을 위한 영아부 태아학교가 1층 유년부실에서 있었습니다.



3월 4일(수)에 어머니 기도회 개강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머
니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지하1층 갈릴리채플에
서 있습니다.



3월 5일(목) 지하1층 갈릴리채플에서 오전 10시에 모세대학 개강예배가 있었습니다. 모세대학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3월 15일(주일) 예배시간에 성례식이 있었습니다. 2부 예배 시간에는 학습과 세례식이, 3부 예배 시간에는 입교와 유아 세례가 있었습니다.



3월 7일(토) 유치부 겨울성경학교가 “에벤에셀과 여호와 이레-다윗의 고백”이라는 주제로 지하1층 영아부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3월 15일(주일) 오후예배 시간에 2층 예루살렘채플에서 2026 목자 헌신예배가 있었습니다.



3월 8일(주일) 오후예배 시간에 청년위원회 장학분과 주관으로 2026년 자랑스런 범어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3월 20일(금)~21일(토)에 청년 2부 봄수련회가 “Who am I”란 주제로 경주 베이스캠프 수양관에서 있었습니다.

범어‘인(人)’의 얼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들

건네어 주시며 받아드는 이 손길에서 미처 전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같이 받아 갑니다.
살피며 전해주시는 이 수고에 가득 담긴 이야기는 저 은은한 미소들 만큼 온기 가득하여
다시 걸음하는 이유가 됩니다.



범어범어(泛魚凡語)

“주님의 교회 안에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사람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에 환영받는 동일한 성도이다”

주일 설교 중

“나의 환경과 자녀의 문제 앞에 상황이 먼저 눈에 들어올 때,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전쟁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결국 승리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마더와이즈 나눔 중

“God is there~! 하나님은 나를 향한 시선을 결코 거두지 않으신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눈 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눈 뜨게 하시기를 기도 드려야 한다”

주일 설교 중

“나의 선택이 실패일지라도, 좌절과 두려움의 연속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한다”

주일 설교 중

범어동정(泛魚動靜)

한 달 동안 범어인의 상황과 이동

■ 결혼

- 윤경진 군과 장리브가 양 : 3월 14일(토) 오후3시
인터불고호텔 인터빌리지
- 전순희 명예권사의 장남 김태형 군 : 3월 28일(토)
오전11시 웨딩메르디앙 6층 다소니홀(침산동)
- 이서현 군과 박세은 양 : 3월 28일(토) 낮12시30분
인터불고호텔 파크빌리지

■ 개업 | 강연선 성도 : 뉴엘포레부동산 수성구 청솔로 24

■ 개원

- 우유정 집사 : 아카바 영어학원 중등 아너스관
달구대로 2545 산수골빌딩 3층
- 유희준 성도 : 범어 에일린업 미술학원_범어천로 67, 4층
- 김유준 성도(이해은 집사) : 범물 온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지범로 200, 3층

■ 공연 | 가곡교실 패밀리콘서트 : 3월 1일(주일) 오후6시 수성아트피아 박정숙A 은퇴권사 출연

■ 정기연주회

- 이창호 집사(할렐루야찬양대 지휘자) 안동시립합창단 지휘
3월 13일(금) 오후7시30분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웅부홀

■ 출산

- 손한나 성도(김사은 이래집사) : 득남 2월 25일(수)
- 김혜림 성도(배성열 성도) : 득남 3월 10일(화)
- 이지영C 집사(이신훈 집사) : 득남 3월 18일(수)
- 김현욱 성도(최규빈 성도) : 득녀 3월 23일(월)
- 지송화 성도(신동윤B 성도) : 득녀 3월 23일(월)

■ 3월호 금요초청예배 포스터(p.18) 날짜 정정 4월 17일(금) 고용기 목사 5월 29일(금) 이진영 목사 6월 26일(금) 신성욱 교수

4월 교회 행사 안내

- 3일(금) : 부활절 찬양의 밤
- 5일(주일) : 부활절, 대기총 부활절 연합예배(오후)
- 7일(화) : 수성노회 정기 봄 노회
- 12일(주일) : 성찬식(1~4부), 정기제직회(오후)
- 17일(금) : 120주년 범어교회 출신 목회자 초청설교
고용기 목사(의왕 평안교회)
- 19일(주일) : 장애인 주일
- 24일(금) : 강사_이안 더귀드 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
- 26일(주일) : 정기당회, 바울청년회 주관예배(오후)

4월 주일학교 행사 안내

- 5일(주일) : 중등부 부활주일 찬양예배
- 12일(주일) : 영어예배부 수성못 버스킹
- 18일(토) : 영어예배부 교사 아웃팅
- 25일(토) : 고등부 학원 앞 노방전도

편집장 | 이영선C

부편집장 | 신규식, 여경진

편집위원 | 김동영, 김성애B, 김현성, 서정주
손명진, 이미경C, 이상진, 이창권
조성희A, 허윤정

사진 | 미디어위원회

디자인 | design studio Jabez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범어교회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범어교회보 | 1986. 5. 25 창간

2026년 범어교회 단기선교 지원자 모집



선교지역	기간	사역내용	인원	숙소	예산경비	기타사항
캄보디아 (캄퐁퐁) 하용병 선교사	8월 3일(월) ~ 8월 7일(금)	① 복음확장사역 (지역전도 등) ② 문화사역 (찬양, 율동, 한국음식, 축구대회 등) ③ 교육사역 (국제학교 사역 외) ④ 시설사역 (태양광 전등 설치 등)	15명	센터 내	약 150만원	• 연령 무관
	8월 14일(금) ~ 8월 18일(화)	① 의료사역	15명	센터 내	약 150만원	• 의료선교위원회 주관 운영 • 일반 성도 참가 가능
몽골 (울란바타르-모벨) 김보선 선교사	7월 27일(월) ~ 7월 31일(금)	① 신앙교육사역 (어린이 성경학교 등) ② 돌봄사역 (미용, 네일아트, 얼굴팩 등) ③ 문화사역 (한국음식, 한국문화 등)	20명	센터 내 또는 현지 숙소	약 200만원	• 성인
베트남 (하노이) 차오른 선교사	8월 10일(월) ~ 8월 14일(금)	① 신앙교육사역 (성경학교캠프 진행 등) ② 교육사역 (다문화가정 아이들 학교수업 진행 보조 등)	12명	현지 숙소	약 150만원	• 고등학생 이상
태국 (방콕) 김태형 선교사	2027년도 1월 중	① 복음확장사역 (개척교회 방문, 지역전도 등) ② 교육사역 (음악활동, 미술, 운동, 어린이 교육 등) ③ 문화사역 (한국음식, 놀이 등)	10명	교회 또는 현지 숙소	약 170만원	• 중학생 이상
일본 (도쿄) 김종택 선교사	11월 18일(수) ~11월 21일(토)	① 복음확장사역 (학교 사역 등) ② 문화사역 (한국음식, 한국문화 등)	8명	현지 숙소	약 120만원	• 성인
필리핀 (랑캉) 배기창 선교사	7월 29일(수) ~ 8월 3일(월)	① 복음확장사역 (말씀사경회, 지역 전도 등) ② 신앙교육사역 (성경학교 진행 등) ③ 시설사역 (교회건물보수, 벽화 등)	15명	현지 숙소	약 160만원	• 성인
필리핀 (일로일로) 최명열 선교사	추석연휴기간 5박 6일 예정	① 의료사역	15명	현지 숙소	약 160만원	• 의료선교위원회 주관 운영 • 일반 성도 참가 가능
인도네시아 (한인교회)	8월 3일(월) ~ 8월 8일(토)	① 예배 및 연합집회 ② 기타 교회 사역 협력 ③ 일정 중 인근 선교지 방문 예정	30명	현지 숙소	약 170만원	• 청소년 팀 : 15명 이내 • 지도자 팀 : 20명 이내 (팀별 선착순 우선 마감)

접수기간 | 2026년 3월 8일(주일) ~ 4월 4일(토) *접수기간 후 추가모집 별도 문의

문의 | 세계선교위원회 총무 박순만 집사(010-3524-5287), 간사 박민열 강도사(010-9800-2045)

의료선교위원회 총무 최재영 집사(010-4513-5755), 간사 박광우 목사(010-6575-4007)

신청 | 단기선교를 희망하시는 성도는 <단기선교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교역자 또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시거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세요.

***단기선교 지원서는 교회 각종 부스와 교역자 사무실, 행정사무실에 있습니다.**



신청 QR코드

- 모든 일정은 선교지와 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역은 자비량을 원칙으로 하며, 실경비는 예산경비보다 훨씬 높을 수도 있습니다.
- 2018년 이후 우리 교회 선교훈련을 수료하신 성도(2026년 포함)님과 청소년 선교학교를 수료한 청소년은 항공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추후 소급은 불가합니다.
- 지역별 지원 인원이 사역하기에 부족할 경우 계획은 취소될 수 있으며, 세계선교위원회 규정에 의거 지원자가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